

어린이 책꽂이



▲명화로 배우는 미술의 모든 것=어렵고 딱딱한 미술 개념들을 세계 최고의 명화 80여 점과 함께 설명한다. 점, 선, 형태, 양감 등 미술의 기본 개념부터 ‘삼원색’, ‘열 가지 기본색’,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 같은 색채의 종류 등 다양한 미술 기법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풀어냈다. <시공주니어·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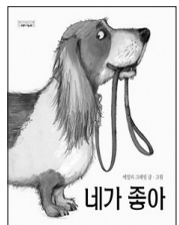
▲빗물의 비밀=국내 최고 빗물 전문가가 한 무용 교수가 빗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점차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지고 홍수나 가뭄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빗물,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리젠·1만1000원>



▲똥자루 굴러간다=엄청나게 굵고 큰 똥자루, 천하장사 뽀치는 힘 덕에 부장군이 된 처녀. 어느 날 외적이 쳐들어오자 똥자루 처녀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적들을 일망타진한다. 위기를 헤쳐나가는 슬기와 단점도 장점으로 살리는 지혜를 전해준다. 강원 지역의 설화 ‘이완 장군과 똥자루 큰 처녀’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국민서관·1만1000원>



▲보라색 수동들 3=스웨덴 소동=영국에서 주는 네슬러상에서 금상을 받은 어린이작가 선 테일러의 창작 동화. ‘팬티 입은 늑대’ 등 신나는 학교생활을 그린 4권의 유쾌한 이야기를 엮었다. 엄하고 무서운 웰링턴 선생님이 개구쟁이들의 답답을 맡은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해프닝은 유쾌하고 흥미진진하다. <꿈터·9000원>



▲네가 좋아=퍼그, 치와와, 푸들, 달마시안 등 귀여운 개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림책이다. 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림책 작가 에밀리 그래벳이 그리고 글도 썼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큰 개와 작은 개, 장난꾸러기 개와 얌전한 개, 잘 있는 개와 조용한 개 등 다양한 종의 개들이 개성을 뽐내며 나타난다. <어린이작가정신·9500원>



▲다라국 소년 더기=역사의 그늘에 묻힌 가야 제국의 한 국가인 다라국의 존재를,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생생하게 복원시킨 동화. 작가 소민호씨는 경남 함천의 옥전 마을에서 발견된 다라국 유물들에 착안하여 이야기를 만들었다. 1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철기방 사람들의 행태를 낱낱이 그려냈다. <섬아리·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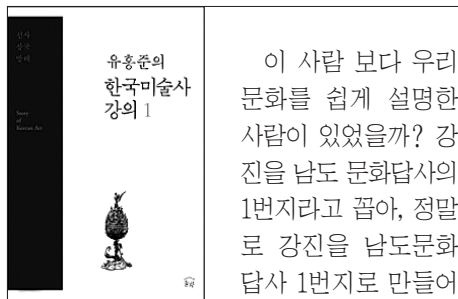
▲토토, 진실만 말하렴=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아한까마귀상을 수상한 모니케 세페다의 철학동화. 거짓말 때문에 혼이 난 토토는 이제 진실만 말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런데 진실만 말했는데도 또 꾸중을 듣고 만다. 토토는 이제 혼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푸른길·1만원>

▲힘센 과학자=뉴턴의 중력의 법칙, 이휘소의 소립자 물리학 등 과학자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 위대한 발견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들려준다. 또 그 속에 숨은 과학 이론과 원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한다. <뜨인돌어린이·9800원>

편히 읽을 수 있는 선사시대·삼국·발해 미술사

한국 미술사강의 1

유홍준 지음



이 사람 보다 우리 문화를 쉽게 설명한 사람이 있었을까? 강진을 남도 문화답사의 1번지라고 꼽아, 정말로 강진을 남도문화답사 1번지로 만들어 버린 사람.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썼던 명지대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교수가 ‘한국 미술사강의 1(선사·삼국·발해)’을 펴냈다. 최근 1년간 ‘한국미술사의 통사적 개관’을 주제로 한 대학원 세미나 강의 원고를 다듬었다. 1권은 선사시대부터 원삼국, 삼국시대, 발해까지를 다룬다. 김원웅의 ‘한국미술사’ ‘한국고고학개설’, 북한의 ‘조선미술사’ 등 기존 저술, 도록, 보고서 등 내용들을 압축하고 할아버지의 옛이야기처럼 편안한 문체로 풀어

냈다. 저자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동서남북의 방위신으로 무덤 벽화에 단골로 그려진 사신도(四神圖)를 눈여겨봤다. 청룡과 백호, 주작, 현무 등 사신이 중국 건축과 조각, 회화에서 방위를 나타내고 사방을 수호하는 상징으로 등장한 것은 기원전 200년 무렵인 한나라 때부터다. 사신도는 약수리무덤을 비롯해 일찍이 고구려 무덤 벽화에서도 그려졌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 무덤 벽화 90여기 중 34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또 고구려 후기인 6~7세기에 가면 사신도 뿐만 아니라 무덤 벽화가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대 중국의 고분 벽화가 인물과 신신으로 채워진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저자는 책의 첫머리를 ‘인류의 탄생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시작한다. 아리카에서 탄생한 인류의 시작에서 출발해 한반도로 넘어와 검은모루동굴과 전곡리 유적지를 김경다리로 삼아 한국미술로 넘어간다. 한국 미술을 동시대의 중국, 일본 등 주변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

기 위해서다. 또 건축, 조각, 회화, 공예 순으로 기술되는 서양미술사와는 달리 한국미술의 사정에 맞게 시대별로 묶은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의 미술사 서술 방식이 유물 각각에 대한 나열식 서술이었다면, 이 책은 미술사의 큰 흐름 속에서 각 유물이 갖는 위치와 특징 등을 설명한다. 풍부한 사진 자료를 곁들이고, 부록으로 ‘불교미술의 기본원리’ ‘미술사학의 방법론’을 실어 한국 미술사 입문자들의 책임기를 돕는다. 최근 발간된 도록에서 찾아낸 도판은 유물의 생생한 현장감을 살렸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편하게 볼 수 있는 책, 굳이 안 읽더라도 도판만 훑어 봐도 미술의 이야기가 읽힐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교양과 상식으로 ‘히스토리(History)’가 아닌 ‘스토리(story)’를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사와 삼국, 발해시대를 다룬 1권을 먼저 펴내고, 2011년 봄과 2012년 가을에 각각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다룬 2, 3권을 출간할 계획이다. <놀와·2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잘 알려진 유홍준 교수가 한국 미술사를 집대성한 ‘한국미술사 강의’를 펴냈다. /연합뉴스

교사가 권하는 가슴에 와 닿는 시

국어 선생님의 시 배달

김영찬 외 49명 지음



국어 선생님은 어떤 시를 권할까?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 50명이 필자로 참여한 시 해설집 ‘국어 선생님의 시 배달’이 출간됐다. 지난해부터 ‘창비국어’ 홈페이지(www.chang-biedu.com)에 연재했던 것을 엮은 것이다. 김영찬, 박성환, 정형근 등 필자들은 각각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시 한 편씩을 골라 해설을 붙였다. 참고서 식의 딱딱한 분석 대신 감성적 차원에서 시에 접근하고자 했다. 필자들은 학생은 물론 선생님, 학부모까지 많은 사람의 가슴에 시의 감동이 오롯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말쑥부러진 제자가 시험 답안지에 적은 반성문, 시력을 잃은 어머니의 두 눈이 피고자 애쓰는 학생 등 교육현장에서의 감동적 체험이 녹아 있는 시 해설은 그 자체로 훌륭한 읽을거리다. 자연, 인생, 역사, 사람 등 주제별로 4부로 구성된 책에는 백석·서정주·김수영·김춘수·신동엽·박재산 등 작고 시인들을 비롯해 황동규·김광규·문인수·정호승·이성복·최승호·도종환·김기택·정일근·나희덕·권혁웅·문태준·김경주 등 현역 시인까지 세대별 주요 작품이 망라돼 있어 한국 현대시의 역사를 일별할 수 있게 한다. <창비·9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과학 고전 14편을 쉽게 풀어쓰다

세계를 움직인 과학의 고전들

가마타 히로키 지음



‘시데라우스 눈치우스’ ‘성운의 세계’ ‘상대성 이론’ 등 과학 고전을 접하면 우선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분량이나 내용으로 볼 때 섣뜻 펼쳐들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일본 교토대 학생들이 ‘가장 수월하고 싶은 교수’ 1위로 뽑은 가마타 히로키의 저서 ‘세계를 움직인 과학의 고전들’은 과학 고전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쉽게 풀어쓴 과학 안내서이다. 저자는 갈릴레오의 ‘시데라우스 눈치우스’로부터 다윈의 ‘종의 기원’, 카슨의 ‘침묵의 봄’, 그리고 왓슨의 ‘이중나선’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고전 열네 편을 선정해, 과학책과 과학자들에 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과학의 본질과 내용을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도 알기 쉽게 풀어낸다. 저자의 과학책 탐독기라 할 수 있는 열네 편의 칼럼도 눈여겨볼 만하다. 칼럼에서는 길이를 재는 공통의 척도인 ‘미터’를 정하고자 북극에서 적도까지 실측에 나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만물의 척도’를 비롯해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 ‘빅뱅-어제가 없는 오늘’ 등 현대 과학책들에 대해 쓰고 있다. 또 이정모 교수가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 과학책 중 가려 뽑아 올린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은 21세기 현대인이 교양으로 읽어 아할 과학 명저 지도라 하기에 충분하다. <부키·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권력과 밀착, 금융명가의 흥망성쇠

세계를 움직인 돈의 힘...

게랄트 브라운베르거 외 지음



금융 왕조는 보통의 은행가 가문과 달리 권력과 공생해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행사한 가문을 말한다. 금융 왕조들은 15세기 이후 근현대 세계사에서 교황과 황제들의 득세와 몰락, 전쟁과 평화, 자본의 발흥과 제국주의 확장 등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힘을 과시했다.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사들일 때 자금을 마련해 준 로트실트 가문은 19세기에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강력한 세력으로 여겨졌을 정도였다. 게랄트 브라운베르거 등이 엮은 ‘세계를 움직인 돈의 힘-금융가문의 탄생과 몰락으로 읽는 세계사’은 금력과 권력의 결합과 공생에 초점을 맞춰 근대 이후 세계사를 뒤흔든 메디치 가문, 픽테 가문 등 21개 금융 명가들의 간략한 일대기이자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금융자본의 역사를 요약한 책이다. 전략과 음모, 예술 후원과 축적, 경쟁과 탐욕, 새로운 사업 모델과 변신 등으로 흥성과 쇠망을 이어간 세계 최고 금융 왕조 21개 가문들의 이야기를 돈과 권력의 결합에 초점을 맞춰 들려준다. 특히 금융 명가들의 흥망성쇠를 세계사적인 사건과 관련해 재조명함으로써 금융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늘날 정치권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다. <현암사·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dreamkorea.biz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방수의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습윤상태에서도 방수를 할 수 있다.
- 기술이 필요없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경제적이다. • 특히 인조 신기술 공법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방수제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 옥상 • 외벽 • 지하실 • 공장바닥 • 주차장
- 흙집 • 물탱크 • 양어장 • 수영장 • 기와집
- 화장실 타일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냄새 나는 집
-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생산지	DK 301	가벽 전창도막 방수제
취급	DK 302	노상 지붕 단독용 방수제
제품	DK 303	누수 정지 콘크리트 방수제
	DK 305	벽체 침투 노상 방수제
	DK 306	합크팅 수고성 투명방수제
	DK 307	수압 방수제
	DK 3000	수압 드림폴드
	DK 1000	드림판

신제품 물막 부어 사용하듯
강력접착자동수평바닥재 DK-1000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감동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연혹하여 판매 및 사용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인증 품질보증업체**입니다.

BROWN POLYMER GORE-TEX 고어텍스공법

특약점 정확한 시공을 위한

광산구 062)941-3266 북 구 062)433-2225 여 수 061)662-3002
남 구 062)430-5777 순 천 061)746-5556 해 남 061)532-9789
서 구 062)372-7704 나 주 061)333-7789
동 구 062)234-6698 목 포 061)242-2220

500x300

옥상·외벽·내벽·주벽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청소하시고 로로로 직접 칠해 주세요.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물기나 습기가 있는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주)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500x300